

## 『헌산지』에 실린 『여지도서』의 목차와 편찬 규정

이 재 두\*

- I. 머리말
- II. 구간본 범례 12조
- III. 홍문관 범례 35조
- IV. 추가된 범례 5조
- V. 영관내 각조 정식
- VI. 맺음말

### 국문초록

언양현 읍지인 『헌산지(獻山誌)』(1760)의 서문과 각종 범례는 『여지도서(輿地圖書)』의 표준 양식, 곧 목차와 편찬 규정을 밝혀준다. 『헌산지』를 편찬할 무렵 홍문관에서 내려 보낸 규정은 35개 항목이었다. 이후에도 두 차례에 걸쳐 5개의 항목을 추가하라는 공문이 내려왔다.

최종 완성된 『여지도서』의 경상도 지역 목차는, [지도], [강역(疆域)] 외에 ①방리(坊里), ②도로(道路), ③건치연혁(建置沿革), ④군명(郡名), ⑤형승(形勝), ⑥성지(城池), ⑦관직(官職), ⑧산천(山川), ⑨성씨(姓氏), ⑩풍속(風俗), ⑪능침(陵寢), ⑫궁실(宮室), ⑬학교(學校), ⑭단묘(壇廟), ⑮총묘(塚墓), ⑯공해(公廨), ⑰제언(堤堰), ⑱창고(倉庫), ⑲물산(物産), ⑳교량(橋梁), ㉑역원(驛院), ㉒목장(牧場), ㉓관애(關陬, 관액), ㉔봉수(烽燧), ㉕누정(樓亭), ㉖

\* 경북대학교 사학과 박사과정 수료 / 2sigory@daum.net

사찰(寺刹), ⑦고적(古蹟), ⑧진보(鎭堡), ⑨명환(名宦), ⑩인물(人物), ⑪제영(題詠), ⑫한전(旱田), ⑬수전(水田), ⑭진공(進貢), ⑮조적(糶糴), ⑯전세(田稅), ⑰대동(大同), ⑱균세(均稅), ⑲봉름(俸廩), ⑳군병(軍兵) 순이다. 군현에 따라 최대 40개 항목까지 수록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전국 지리지를 목표로 한 『여지도서』 편찬 당시 경상도 지역에서는 『신증동국여지승람』 수록 23개 항목에 [지도], [강역], ①방리, ②도로, ⑦판직, ⑬공해, ⑰제언, ⑱창고, ⑳목장, ㉑진보, ㉒한전, ㉓수전, ㉔진공, ㉕조적, ㉖전세, ㉗대동, ㉘균세, ㉙봉름, ㉚군병의 17개 항목을 추가하였다. 경상감영에서 내려 보낸 홍문관 지침에 따라 각 군현에서는 중앙에 올려 보낼 3권(어람·홍문관·성군관), 감영에 비치할 2권을 만들어 감영에 바쳤다. 감영에서는 각 군현에서 읍지를 일괄적으로 재단하고 장정하여 책으로 묶었다.

현존하는 『여지도서』 경상도편은 일부 군현이 누락되어 있지만, 여러 차례의 수정 지시를 통해 ‘최종적으로 확정된 『신증동국여지승람』의 모든 항목’을 반영하였다. 이에 비해 다른 도 지역에서는 ⑬학교(學校)·㉑명환(名宦)·㉒제영(題詠), ⑫궁실(宮室)·⑮총묘(塚墓) 항목이 대부분 들어 있지 않다. 이들 5개 항목은 『신증동국여지승람』 수록 항목이었으나, 여러 차례의 수정 지시에도 불구하고 목차를 최종적으로 확정하기 이전까지는 경상도에서도 빠져 있던 항목이었다.

중앙 정부의 지방 통치 자료 수집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이들 항목이 그다지 필요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재지사족의 입장에서는 『신증동국여지승람』의 고려를 들어 이들 항목을 유지하고자 하였을 것이다. 아울러 인물의 수록 자격도 중앙 정부에서 요구하는 수준으로 제한하지 않고 더 많은 인물들을 수록하고자 하였을 것이다. 『여지도서』에서 경상도와 다른 도 지역의 일부 항목이 차이가 나는 것은 이러한 데서 연유한 것으로 보인다.

#### ◆ 주제어

『헌산지(獻山誌)』, 『여지도서(輿地圖書)』, 목차(目次), 편찬 규정(編纂規定), 『읍지(邑誌)』,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 안양현(彦陽縣).

## I. 머리말

현존하는 『여지도서(輿地圖書)』는 한국교회사연구소 소장본으로 1973년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영인하여 상·하 2권으로 간행하였다.<sup>1)</sup> 이 책은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에서 원문을 제공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sup>2)</sup> 번역이 완료되어 50권이라는 거질로 출판되었다.<sup>3)</sup> 『여지도서』는 여지도(각 읍지도)와 서(각읍 읍지)로 이루어진 전국 지리지로, 각도 읍지를 수취(收聚)·개수(改修)하여 55책으로 성책(成冊)한 것이다.<sup>4)</sup>

이 책은 한성부, 개성부, 경기도 7, 충청도 3, 전라도 16, 경상도 11 모두 39개 군현 및 경기도와 전라도의 총론과 지도, 경기 감영과 병영 및 전라도의 감영·병영·좌수영·우수영 모두 6개의 영이 결책되어 있다.<sup>5)</sup> 이러한 이유로 홍문관 소장본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기도 한다.<sup>6)</sup> 강원도·황해도·평안도·함경도는 누락된 지역이 없다. 이는 『여지도서』가 각 군현에서 상송한 읍지를 개수(改修)한, 즉 『여지도서』 편성을 위한 개수본임을 보여준다.<sup>7)</sup>

『여지도서』 책2 가평읍지 말미에 부기(附記)된 ‘건륭 25년 10월 일’은 1760년(영조 36)에 해당한다. 각 군현의 호구·전결·부세 관계의 장적은, 경기도 금천현이 갑자장적(1744), 충청도 괴산군이 병자장적(1756)의 호구를 기재한 것을 제외하고는 거의 기묘장적(영조 35, 1759)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sup>8)</sup> 따라서 현재 전해지는 『여지도서』는 1760년에 성책한 것으로 볼 수 있다.<sup>9)</sup>

1) 국사편찬위원회, 『여지도서』 상·하, 탐구당, 1973.

2) <http://db.history.go.kr>

3) 변주승, 문용식 외, 『국역 여지도서』 1~50, 디자인 흐름, 2009.

4) 최영희, 해설, 『여지도서』 상, 탐구당, 1973, 1쪽, 5쪽.

5) 양보경, 「조선시대 읍지의 성격과 지리적 인식에 관한 연구」, 『지리학논총별호』 3, 1987, 101쪽 참고.

6) 양보경, 앞의 논문, 1987, 100쪽.

7) 최영희, 해설, 6~9쪽.

8) 최영희, 해설, 3~4쪽.

9) 배우성, 『조선후기 국토관과 천하관의 변화』, 일지사, 1998, 140쪽.

그동안 『여지도서』에 대한 연구는 많이 축적되어 왔다. 양보경은 각 읍지의 첫머리에 채색지도를 넣고, 건치연혁 앞에 방리를 위치시켰으며, 도로를 신설하였고, 조세 관련 항목을 중시하였으며, 동일한 시기에 작성된 공시적(共時的) 기록으로 지역간 비교가 용이한 18세기의 종합적인 관찬읍지임을 밝혔다.<sup>10)</sup> 그는 『여지도서』 편찬을 위해 중앙에서 일정한 규칙(規式)을 각 군현에 내려 보내고 그에 따라 각 지방에선 읍지를 작성하여 중앙에 올린 사실을 밝혔다.<sup>11)</sup> 그러나 중앙에서 내려 보낸 규칙의 실체를 찾아내지는 못하였다.

배우성은 영조 때 『여지도서』가 편찬되는 과정을 살펴면서 정책 자료로서의 지리지임을 밝혔다. 그는 『오산문첩』과 황윤석의 문집을 활용하여 『여지도서』 편찬의 전 과정을 파악하려 노력하였다.<sup>12)</sup>

고려사학회에서는 ‘『여지도서』를 통해 본 조선후기 국가의 지방 지배’를 특집으로 마련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기도 하였다. 이때 논문을 발표한 이들은 『여지도서』 국역 사업에 참여하고 있던 연구자들로 주제를 분담하였다.<sup>13)</sup> 특히 변주승은 전국적인 관찬 지리지 『여지도서』가 공식적인 간행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빠진 고을이 많으며 도별과 지역별로 수록 기준과 내용에서 큰 차이를 보인 ‘미완의 전국 지리지’로 남게 되었음을 확인하였다.<sup>14)</sup> 번역진 일부는 인천대학교 인천학연구원을 통해 인천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10) 양보경, 앞의 논문, 1987, 100~109쪽.

11) 양보경, 「18세기 지리지·지도의 제작과 국가의 지방지배」, 『웅용지리』 20, 1997, 23쪽.

12) 배우성, 「18세기 전국지리지 편찬과 지리지 인식의 변화」, 『한국학보』 22-4, 1996, 148~160쪽(배우성, 앞의 책, 130~145쪽).

13) 변주승, 「『여지도서』의 성격과 도별 특성」, 『한국사학보』 25, 2006, 435~464쪽; 이상식, 「『여지도서』를 통해 본 지방행정 체계의 구성 및 운영원리 - 충청도 지역을 중심으로」, 『한국사학보』 25, 2006, 465~494쪽; 문용식, 「『여지도서』를 통해 본 18세기 조선의 환곡 운영 실태」, 『한국사학보』 25, 2006, 495~529쪽; 이철성, 「『여지도서』에 나타난 전결세 항목의 텍스트적 이해」, 『한국사학보』 25, 2006, 531~571쪽; 서종태, 「『여지도서』의 물산 조항 연구」, 『한국사학보』 25, 573~609쪽; 김우철, 「『여지도서』 ‘성씨’조의 검토」, 『한국사학보』 25, 2006, 611~644쪽.

14) 변주승, 앞의 논문, 2006, 458쪽.

논문을 발표하기도 하였다.<sup>15)</sup>

그 뒤 김우철은 조선후기 전라도의 개관(改貫) 실태를, 조영준은 영조대 균역해세(均役海稅)의 수취와 상납을, 허원영은 18세기 중엽 조선의 호구와 전결의 지역적 분포를, 변주승과 김정화는 전라도편의 성격과 물산·진공 조항을, 양운정은 군현지도의 발달을 살폈다.<sup>16)</sup>

최근 정대영은 서지 분석을 통해 『여지도서』는 서명웅(徐命膺)의 소장본으로 판단하였으며, 도(道) 단위로 항목이 일정하게 차이가 나고, 제작과정에서 중앙-지방, 지방-지방 사이의 갈등이 있었으며, 전국통계자료의 파악을 위해 진행된 일련의 사업이었음을 확인하였다.<sup>17)</sup> 정대영의 연구는 근거 자료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여지도서』가 어떠한 이유와 방식으로 제작되었는지를 찾고자한 의미 있는 시도였다.

연구의 축적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조선 후기 『여지도서』의 표준 양식, 곧 정확한 목차와 편찬 규정, 인물 수록 기준 및 상급 기관으로 올려 보낸 읍지의 권수 등 근거가 될 만한 분명한 사료를 접할 수가 없었다. 그런데 최근 울산광역시 문화원연합회에서 출간한 『현산지(巘山誌)』(1760)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sup>18)</sup>

15) 문용식, 「조선후기 『여지도서』에 나타난 인천 지역의 환곡운영」, 『인천학연구』 6, 2007, 187~213쪽; 변주승, 「조선후기 『여지도서』의 성격과 인천 지역의 특성」, 『인천학연구』 6, 2007, 215~235쪽; 김우철, 「조선후기 『여지도서』에 나타난 인천 지역의 성씨와 인물」, 『인천학연구』 6, 2007, 237~254쪽; 이철성, 「조선후기 『여지도서』에 나타난 인천 지역의 전결세와 조운로 연구」, 『인천학연구』 6, 2007, 255~285쪽.

16) 김우철, 「『여지도서』를 통해 본 조선후기 전라도의 개관 실태」, 『전북사학』 37, 2010, 165~200쪽; 조영준, 2010, 「영조대 균역해세의 수취와 상납-『여지도서』의 집계 분석」, 『한국문화』 51, 2010, 3~28쪽; 허원영, 「18세기 중엽 조선의 호구와 전결의 지역적 분포 -『여지도서』의 호구 및 전결 기록 분석-」, 수선사학회, 『사람』 38, 2011, 1~37쪽; 변주승·김정화, 『여지도서』 전라도편 성격과 물산·진공 조항 분석, 『역사와 실학』 52, 2013, 69~100쪽; 양운정, 「18세기 여지도서 편찬과 군현지도의 발달」, 『규장각』 43, 2013, 1~30쪽.

17) 정대영, 「영조연간 전국지리지 『여지도서』의 서지적 연구」, 『서지학연구』 68, 2016, 377쪽.

18) 성범중·엄형섭 역, 『역주 울산지리지』 I, 울산광역시문화원연합회, 2014, 259~3

이 글은 『헌산지』에 수록된 헌산여지승람 서, 추록, 구간본 범례 12조, 홍문관 범례 35조, 추가된 범례 5조, 영관내 각조 정식을 통하여 『여지도서』(1760)의 정확한 표준 양식(목차·편찬 규정·인물 수록 기준·서식)과 상납한 책의 권수 등을 파악하고자 한다.

## II. 구간본 범례 12조

『헌산지』 ‘헌산여지승람 서’에 의하면 언양현에서는 1700년(숙종 경진)에 읍지가 편찬되었다. 그러나 이 읍지는 누락된 항목이 많은 데다 기록 또한 자세하지 않고 말이 저속한 경우도 있었다. 이에 언양현감으로 부임한 김천상(金天相)은 서석린(徐錫麟)에게 수정 보완을 지시하였다. 때마침 홍문관[영관(瀛館)]의 지시가 내려와 범례에 따라 조항마다 사실대로 써서 조정에 올리고, 다시 한 권을 베껴서 요람(要覽)에 대비하였다. 이 서문은 1757년(승정 기원 후 정축) 동짓날에 지은 것이다. 그러나 『헌산지』는 이때 완성한 읍지가 아니다. 『헌산지』 서문에 이어 실린 ‘추록’을 보면 『헌산지』는 1760년 박사공(朴思恭)이 현감으로 있을 때에 편찬된 것임을 알 수 있다.<sup>19)</sup> ‘추록’을

---

79쪽, 432~451쪽. 『여지도서』의 표준 양식, 곧 목차와 편찬 규정에 해당하는 곳은 262~274쪽(번역문)과 447~450쪽(원문)이다. 이 논문에서는 이 책에 실린 원문과 대조하면서 특별히 잘못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번역문을 원용하였다. 자료 제공자와 번역자들에게 감사드린다. 한국문화원연합회 울산광역시지회(www.ulsanmunhwa.com) 누리집 ‘자료마당>연구발간서’에는 ‘역주 울산지리지 I·II’ PDF 파일이 탑재되어 있다.; 내표지에 유조돈장(柔兆敦狀)이라는 고갑자가 있어 병오년이라는 연대가 확인되나, 1906년·1966년 등이 해당되는 병오년이 필사한 시기를 말하는지, 소유한 시기를 말하는지는 알 수 없다. 성여신 외, 이상조 역, 『국역 진양지』, 진양문화원, 1991, 702쪽 참고.

- 19) 『헌산지』 ‘후록’에는 ‘교정 정동형, 서석린, 주사 김당, 통훈대부 행언양현감 경주진관 병마절제도위 박(수결), 주사인 진사 서석린(수결)’이라 되어 있다. 『헌산지』 ‘헌선생안’에 의하면 당시의 현감 박아무개는 김천상(1756. 2~1758. 4 재임)을 이어 부임한 박사공(1758. 5~1761. 6 재임)이었음을 알 수 있다.

옮겨보면 다음과 같다.

정축년(1757)에 여지지를 수정할 때에 홍문관이 신중하게 공문을 보내지 않고 오로지 각 고을[읍(邑)]에서 일을 맡은 사람에게 위임하였기 때문에 한계가 없어서 모두 외람되고 잡스러웠다.

기묘년(1759) 겨울에 수찬 김응순(金應淳, 1728~1774)이 바로잡자는 의논을 올리자, 각도의 관찰사에게 유시를 내렸다. 홍문관으로부터 내려온 엄격한 공문이 7~8차례였고 감영에서도 또한 그러하였다. 범례와 절목, 행수와 자수, 지도의 모양, 그 나머지 각항의 기록하는 법이 늘 바뀌어, 서로 모순되고 일치하지 않았다.

따라서 수 년 동안 일을 맡은 사람은 붓을 잡는 데 피곤해졌고 각 고을의 승도들은 지역(紙役)에 병들었다. 이에 관찰사가 홍문관에 있는 구간본을 열읍(列邑)에 반포해 주기를 청하여, 먼저 각 조항의 첫머리에 구간본의 내용을 적혀 감히 한 글자라도 더하거나 덜어내지 못하게 하고 새로 증보한 내용은 하나같이 감영의 절목에 따랐으니, 그 절목은 다음과 같다.

『여지도서』 편찬과 관계하여 중앙 정부에서 논의된 내용들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sup>20)</sup>

- (1) 1754년 12월 3일 영조가 성천, 평양에 읍지가 있는지를 묻고 서명신(徐命臣)에게 기타 읍지를 홍문관에 들이라고 명함.<sup>21)</sup>
- (2-1) 1757년 6월 29일 영조가 각 군현에서 인출한 읍지 가운데 이전 수령이 가지고 있는 것이 있다면 들이라고 함.<sup>22)</sup>
- (2-2) 1757년 8월 9일 홍양한[洪亮漢, 홍양호(洪良浩)]의 건의에 따라 8도 각 군현의 읍지를 올려 보내도록 함.<sup>23)</sup>
- (2-3) 1757년 9월 4일 영조가 읍지를 보고자 하니, 팔도에 인본(印本) 읍지가

20) 배우성의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정대영이 정리한 도표를 간추린 것이다. 배우성, 앞의 책, 131~141쪽, 정대영, 앞의 논문, 402~405쪽.

21) 『승정원일기』 영조 30년(1754년) 12월 3일(정미).

22) 『승정원일기』 영조 33년(1757년) 6월 29일(기축).

23) 『영조실록』 권90, 영조 33년(1757) 8월 9일(무진).

있다면 그 분량에 구애되지 말고 올리라고 명함.<sup>24)</sup>

(3) 1758년 12월 23일 영조가 해서의 읍지 유무를 물어보자 윤동도(尹東度)가 팔도읍지 신건(新件)이 홍문관에 있다고 알림. 각도의 읍지 가운데 들어온 것과 안 들어온 것을 주서(注書)에게 베껴 올리도록 함.<sup>25)</sup>

(4) 1759년 12월 23일 김응순이 영조에게 각도 읍지를 완성하였으나, 그 본문의 인물 항목에 수록된 것이 난잡하여 각도에 명하여 다시금 수정하게 요청하여 윤희함.<sup>26)</sup>

(5) 1765년 12월 8일 영조가 홍문관에 명하여 여지도를 인쇄하여 올리게 하고 각 도의 읍지를 모아서 올리게 함.<sup>27)</sup>

언양현감 김천상의 서문은 (2-1), (2-2), (2-3) 기사와 관련된다. 김천상은 이전의 읍지가 누락된 항목이 많은 데다 기록 또한 자세하지 않았다고 하였지만, 그가 재임할 당시에 편찬한 언양현 읍지의 모습은 확인할 수 없다. 당시 홍문관은 『헌산지』 추록에서 언급한 것처럼 군현에서 일을 맡은 사람에게 위임하여 항목 설정에 대한 규정을 분명히 하지 않았다. 1757년 말부터 1758년에 걸쳐 전국에서 모아진 각 군현의 읍지는 관찬임에도 불구하고 형식이 통일되지 않았고 매우 다양한 형태의 읍지들이 수집되었다. 그것은 중앙 정부에서 내려 보낸 편찬 규정이 분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sup>28)</sup>

(3) 기사처럼 읍지에 대한 중앙 정부의 관심은 지대하였다. 그러나 1758년 말까지 각 도에서 올라온 ‘팔도읍지 신건’은 만족스러운 것이 아니었다. 이에 중앙 정부에서는 여러 차례에 걸쳐 항목 설정과 목차에 대한 공문(관문)을 내려 보냈다.<sup>29)</sup> 이러한 조치들에 대해 『헌산지』 추록에서는 홍문관

24) 『승정원일기』 영조 33년(1757년) 9월 4일(계사).

25) 『승정원일기』 영조 34년(1758년) 12월 23일(을해).

26) 『승정원일기』 영조 35년(1759년) 12월 23일(기해).

27) 『영조실록』 권106, 영조 41년(1765) 12월 8일(기유); 『승정원일기』 영조 41년(1765) 12월 8일(기유)

28) 1757년 홍양한의 발의에 의해 군현지도가 첨부된 읍지가 각 군현에서 수합되기 시작하였다. 필사본과 인쇄본이 섞여 있는 각 지역의 ‘무인본’(1758) 읍지는 『여지도서』라는 제목으로 왕에게 올려졌다. 배우성, 앞의 책, 140쪽.

29) 전라도 순창군에서도 읍지의 내용이 번잡하다며 개찬하도록 하는 명을 받고 재차



공문과 감영 공문이 각각 7~8차례나 내려오면서 일을 맡은 사람의 고생이 매우 심하였음을 토로하였다. 『헌산지』는 (4)의 기사와 『헌산지』 추록에 언급되어 있듯이, 1759년 12월 23일 김응순의 건의로 시작된 읍지 개수 사업의 결과물이며, 『여지도서』 언양현편과 거의 동일하다.<sup>30)</sup>

『헌산지』에는 추록에 이어, 구간본 범례 12조, 영관 범례 35조, 추가된 범례 3조, 경상감영의 공문에 의해 추가된 범례 2조가 실려 있다. 이들 범례는 홍문관에서 읍지 편찬의 원칙으로 내려 보낸 범례 이후에도 두 차례나 더 항목이 추가되었음을 보여준다.

구간본 범례는 기존의 『신증동국여지승람』에 수록된 언양현 기사들의 항목으로 ③건치연혁, ④군명, ⑨성씨, ⑧산천, ⑨토산, ⑥성곽, ②봉수, ②①역원, ②⑥불우, ④사묘, ③⑩인물, ③①제영이다.<sup>31)</sup> 언양현은 소규모 군현으로 경주부 등 다른 군현에 비하여 항목 수가 적을 수밖에 없었다.<sup>32)</sup> 그러나 『헌산지』 수록 항목을 보면, 『신증동국여지승람』 언양현 기사에서도 ⑤형승, ⑩풍속, ⑫궁실, ⑬학교, ⑮총묘, ⑯교량, ⑮능정, ⑰고적, ⑲명환 모두 9개 항목이 더

만들어 올렸다. 재차 만들어 올린 것은 이은(李濂)의 발의와 서명응의 범례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배우성, 앞의 책, 134쪽.

30) 다만, 『헌산지』의 ⑦관직에는 인리 19인, 지인 7인, 관비 사령 12명, 관노 13구, 관비 10구에 이어, 다시 인리 24인, 서원 15인, 지인 14인, 관비 11구, 연좌비 2구가 더 수록되어 있다. ⑰제언은 『여지도서』에서는 부제(釜堤)의 경우 ‘재현북(在縣北) 19리’식으로 나오나, 『헌산지』에는 ‘재상북면(在上北面)’식으로 나오는 것이 다르다. 『헌산지』에 수록된 ⑰제언의 홍문관 규정에는 명칭과 둘레가 몇 장이며, 깊이가 몇 척인지를 적게 되어있어 읍지에서의 방위와 거리로 할 것인지, 방리로 할 것인지는 정해져 있지 않았다.

31) 원번호는 『헌산지』의 범례대로 항목을 배정하였을 때의 순서를 의미하며, 밑줄 친 것은 홍문관 범례 35조 뒤에 추가된 5개 항목 중의 하나를 의미한다.

32) 경상도에서 가장 큰 대읍인 경주부는 [강역], ③건치연혁(속현, 진관, 관원 포함), ④군명, ⑨성씨, ⑩풍속, ⑤형승, ⑧산천, ⑨토산, ⑥성곽, ③관방, ②봉수, ⑫궁실, ⑮능정, ⑬학교, ②역원, ⑯교량, ②⑥불우, ④사묘, ⑮능묘, ⑰고적, ⑲명환, ③⑩인물(우거·효자·열녀 포함), ③①제영 모두 22개 항목이며, 안동·청송·선산·진주·창원 등에는 ⑮총묘 항목이 있는 것으로 보아 군현에 따라 최대 23개 항목을 둘 수 있었다. 『신증동국여지승람』 권21, 경상도 경주부 및 『신증동국여지승람』 경상도 해당 군현 참고.

있어야 했다. 이는 언양현의 경우 다른 군현에 비하여 『신증동국여지승람』 수록 내용이 그만큼 부실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만약 이들 항목을 수록하였다면, 구간본 범례는 12조가 아니라 21조가 되었을 것이다.

홍문관 범례 ②도로에 대한 규정 아래에는 ‘모든 서술은 하나같이 『승람』의 규례에 따라 하되, 만약 이후의 사실 중에 채록해 넣을 것이 있으면 역시 채록해 넣는다’는 규정이 실려 있다. 이에 따라 ⑧산천·⑪역원·⑬인물을 제외하면 이미 『신증동국여지승람』 편찬 때 설정된 항목에 대해서는 특별한 지침이 없다.

『신증동국여지승람』 언양현편의 12개 항목이 『현산지』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표 1> 구간본 주요 내용

항목	주요 내용
③건치연혁	1599년(선조 기해)에 울산에 속했다가 1612년(만력 40년 임자)에 복설되었다는 기록이 추가되었으며, 건치연혁에 포함되었던 관원 현감·훈도 각 1인은 ⑦관직 항목으로 독립하였다.
④군명	거지화·현양·현산 *『승람』 내용과 동일함.
⑨성씨	본현 박·김, 현·최·김(내성) *『승람』 내용과 동일함.
⑧산천	진산인 고현산을 비롯하여 취서산·석남산·천화현·부로산·송동·남천·취성천·구증 가사현을 들었다. 정족산·반구산·화장산을 신증하였다. 남천과 취성천만 원문 그대로이다. 고현산은 주맥이 경주부 단석산으로부터 오고 산 위에 기우단이 있다. 취서산은 산 위에 단조성터가 있으며 남쪽 기슭에 기우단이 있다. 석남산 가지산이라고도 하며, 주맥은 고현산으로부터 나온다. 천화현은 석남산의 서쪽 기슭이다. 부로산은 취서산의 남맥으로부터 오며 산 위에 봉수가 설치되어 있다. 송동에서는 1578년(만력 무인)에 위열공 김취려의 외후손인 서천군 정근수가 송동의 서쪽 기슭에서 묘지를 찾아 무덤을 쌓고 비석을 세웠다는 내용을 신증하였다. 신증이었던 가사현은 구증으로 고치고 청도군 경계에 있다는 내용이 빠졌다. 가사현은 가슬현이라고도 하는데 석남산의 동쪽 기슭으로 ⑬관애(관액)에서는 가슬현을 두어 의병이 주둔하였던 사실을 기록하였다.
⑪토산	⑪물산으로 항목 이름이 변경되었으며 비록 순서가 다르긴 하나 모두 다

	그대로 실었다. 철·석이·송이·석청·지황은 지금은 없다고 밝혔으며, 맥문동·백작약·적작약·당귀는 신증하였다.
⑥성곽	⑥성지로 변경하고 『승람』의 신증을 구증으로 하였으며, 읍성을 1500년(홍치 경신)에 석축으로 바꾸었을 때의 현감이 이담룡(李聘龍)이었다는 것과 단조성을 추가하였다.
⑭봉수	부로산봉수가 현 남쪽 5리에 있고, 남쪽으로 양산군 원적산에 응한다는 것을 위천봉수에 응한다고 고치고, 북쪽 소산봉수가 서로 25리 떨어져 있음을 추가하였다.
⑪역원	현 남쪽으로 5리에 있는 덕천역이 동쪽으로는 울산 굴화역까지 30리, 서쪽으로 청도 서쪽까지 80리, 남쪽으로 양산 위천역까지 40리, 북쪽으로 경주 잉보역까지 20리 떨어져 있으며, 중마 2필, 북마 6필, 역리 153인이 있음을 추가하였다. 신원은 현의 남쪽으로 5리를 18리로 고치고 양산 경계에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졌다는 내용이 추가되었다. 저촌원은 울산 경계에, 우천원은 경주 경계에, 석남원은 현 서쪽 30리란 내용이 추가되었으며, 이들 세 원은 보통원과 함께 각각 지금은 없어졌다는 내용이 추가되었다.
⑫불우	⑫사찰로 변경되었으며 간월사·석남사가 신증되었다.
⑭사묘	⑭단묘로 바뀌었으며 반고서원이 추가되었다.
⑪제영	정몽주의 시 1편이 신증되어 있다.
⑩인물	고려 때의 김경직·김희조가, 열녀에 유씨·노씨·정조이·김씨·김씨가 신증되었다.

### III. 홍문관 범례 35조

『헌산지』를 편찬할 때 홍문관에서 내려 보낸 규정인 영관 범례(瀛館凡例)는 35개 항목이다.<sup>33)</sup> ㉮‘고적’은 『헌산지』 영관 범례에는 들어 있지 않다.

33) 순서대로 나열해 보면 [지도], [강역], ①방리, ②도로, ③건치연혁, ④군명, ⑤형승, ⑥성지, ⑦관직, ⑧산천, ⑨성씨, ⑩풍속, ⑪능침, ⑭단묘, ⑬공해, ⑭제인, ⑮창고, ⑯물산, ⑰교량, ⑱역원, ⑲목장, ⑳관애, ㉑봉수, ㉒누정, ㉓사찰, ㉔(고적), ㉕진보, ㉖인물, ㉗한전, ㉘수전, ㉙진공, ㉚조적, ㉛전세, ㉜대동, ㉝균세, ㉞봉림, ㉟군병 순이다.

그러나 『현산지』를 비롯하여 『여지도서』 내 대부분의 군현에 수록된 것으로 보아 단순한 누락으로 보인다. 이중 ㉞고적을 포함한 18개의 항목에는 별다른 지시가 없다.

별도의 지시가 있는 17개 항목들의 편찬 규정을 보면 다음과 같다.

<표 2> 항목별 편찬 규정

항목	편찬 규정
[지도]	지도는 반장으로 하고 행은 10칸, 매 행의 글자는 20칸이다. <sup>34)</sup> 첫 장의 서식 : 한 칸을 비운다.
[강역]	(석 자를 비우고) 아무 읍[모읍(某邑)] : 진관읍이면 진관 아무 읍이라 적고, 진관에 소속된 읍이면 아무 진관 소속 아무 읍이라 적는다. 그 아래 분주(分註)하여 동쪽으로 아무 읍까지 몇 리, 서쪽으로 아무 읍까지 몇 리, 남쪽으로 아무 읍까지 몇 리, 북쪽으로 아무 읍까지 몇 리, 아무 방향으로 서울[경도(京都)]까지 몇 리에 며칠 거리, 아무 방향으로 감영까지 몇 리에 며칠 거리, 아무 방향으로 병영, 수영까지 몇 리에 며칠 거리인지 등을 적는다. 바닷가에 있는 고을[해읍(海邑)]은 바다까지 거리를 적는다.
①방리	동쪽으로 아무 방(方) 아무 리가 관문에서 몇 리 떨어져 있는지, 어느 해 장적에 의거하여 편호가 얼마인지, 남자가 몇 명인지, 여자가 몇 명인지 등을 적는다. 서·남 등의 방도 모두 같은 형식으로 적는다.
②도로	한 고을[읍(邑)]의 사방 도로의 명칭과 거리[리수(里數)]를 적되, 대소를 막론하고 하나하나 자세히 기재해야 하며, 그 오는 길과 가는 길에 접하는 경계도 모두 자세히 기재하여 참고에 대비하게 해야 한다.
‘총서’ <sup>35)</sup>	모든 서술은 하나같이 『승람』의 규례에 따라 하되, 만약 이후의 사실 중에 채록해 넣을 것이 있으면 역시 채록해 넣는다. [總敍一依勝覽規例 而如有伊後事實採入者 則亦爲採入次]
⑥성지	있으면 적지만 없으면 항목 자체를 뺀다.
⑦관직	문관 몇 품이라 적는다. 목사, 군수, 현령, 현감은 무관 몇 품, 음관 몇 품 등으로 경우에 맞게 적는다. 그 아래 관속을 적되, 좌수 몇 명, 별감 몇 명, 군관 몇 명, 아전, 지인, 사령, 군뢰, 관노비 등을 또한 모두 적는다.
⑧산천	아무 산은 아무 고을[주(州)] 아무 산으로부터 와서 아무 고을 아무 산

	의 주맥이 된다고 적고, 아무 물은 아무 고을 아무 물이 갈라져서 아무 고을에 들어와 아무 물이 된다고 적되, 하나하나 자세히 기록하고 주(註)가 잘못되는 폐단이 없도록 해야 한다.
⑪능침	있으면 적지만 없으면 항목 자체를 뺀다.
⑰제언	명칭, 둘레 몇 장, 깊이 몇 척인지 모두 적는다.
⑳역원	아무 역, 말 몇 필, 노비 몇 명인지 하나하나 적는다. 발참이 있는 고을(읍)이라면 또한 이에 의거하여 하나하나 적는다.
㉑목장	넓이, 마필, 곡초, 올려 보내는 시기, 분양파 등을 하나하나 적는다.
㉓관애 <sup>36)</sup>	관애를 설치하여 방비할 곳으로서 예부터 일러 오는 곳을 적는다.
㉔진보	바닷가면 첨만호, 산성이면 별장을 적고, 없으면 이 항목은 뺀다.
㉙인물	다만 『승람』에 기재된 사람과 서원에 들어 있거나 사(祠)를 세운 사람만 적는다. 조정에 알려지지 않은 사람은 감히 아래에서 거론할 수 없다. 효자와 열녀도 널리 알려져 정표를 받은 사람만 기록하고 알려지지 않은 사람은 감히 아래에서 거론할 수 없다.
㉚조적	원회, 별회, 전곡의 총수와 어느 달에 창고를 열고 어느 달에 창고를 봉하는지 자세히 기록한다.
㉞전세	먼저 총수를 적은 다음 어느 때 수봉하는지, 어느 때 짐을 실어 어느 수로를 따라 어느 강포로 들어가는지, 며칠 만에 서울(경도)의 어느 창에 이르는지 하나하나 자세히 적는다. 대동과 군세도 마찬가지이다.
㉟대동	저치미와 작목의 종류를 하나하나 자세히 적는다.
㊱군세	군청에 들이는 각색의 총수를 간략하고 알기 쉽게 하여 번잡하게 적지 않는다.
㊲봉름	아록, 공수위, 시탄, 계치 등 결역(結役, 봉급)의 종류를 자세히 적는다.

- 34) 읍지에서 장당 20행 20자는 어람용 등은 당시 선본 필사의 기본 원칙이었던 것 같다. 이재두, 「단밀현의 역사적 변천과 상주목 속현 『단밀현지』(1749)의 편찬」, 『상주문화연구』 26, 경북대 상주문화연구소, 2016, 32쪽.
- 35) 강화부나 경기도의 일부 군현에서는 이 부분을 총서(總敍) 항목으로 구분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강화도를 제외하고는 경기도 양주는 ‘總敍 別無可論採入者’, 과천·음죽의 경우 ‘總敍 勝覽外別無事實採入者’라 하여 별다른 내용이 없다. 『현산지』에서는 ‘총서’라는 별도의 항목을 두지 않았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總敍’를 ‘모든 서술은’으로 해석하였으며, 별개의 항목으로 보지 않았다.
- 36) ‘關陘’을 연구자에 따라 관액이나 관애로 읽는다. 다른 표현인 關隘를 관애로 읽는

홍문관의 지시에 따라, 언양현에서는 『신증동국여지승람』 수록 기사(구간 본 범례 12조)에 [지도]와 [강역] 외에 22개 항목을 보충하였다.<sup>37)</sup> ③제영은 홍문관에서 내려온 범례 35조에 들어 있지 않았던 항목이며, ⑪능침과 ⑳진보는 언양현에 존재하지 않으므로 『헌산지』에서는 생략하였다.

그럼 홍문관의 규정이 『헌산지』에 제대로 반영되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자.

다른 군현에 비해 『신증동국여지승람』의 언양현편에 빠져 있던 항목부터 보면, ⑤형승에는 반구대와 작괘천을 실었으며, ⑩풍속에서는 5월 5일 열리는 마두전 풍속을 들었다. ⑳교량에는 벽력교를, ㉕누정으로는 진남루를, ㉗고적으로는 화장굴·천전석불을 실었다. 다른 군현의 경우 이들 항목은 기존의 『신증동국여지승람』에 이미 수록되어 있던 항목이었다. 홍문관 범례에는 이들 5개 항목에 대해서 특별한 편찬 규정을 내리지 않았다.

결국 각 군현에서는 『신증동국여지승람』 수록 기사에 [지도]와 [강역] 외에, ①방리, ②도로, ⑦관직, ⑬공해, ⑰제언, ⑱창고, ㉒목장, ㉔진보, ㉔한전, ㉓수전, ㉔진공, ㉕조적, ㉖전세, ㉗대동, ㉘군세, ㉙봉름, ㉚군병 등 17개 항목을 추가한 셈이다.<sup>38)</sup> 통계 자료가 분명한 ⑬공해·⑱창고·㉔한전·㉓수전·㉔진공·㉚군병에 대해서는 특별한 지시가 없다. 전국 지리지 편찬을 목표로 한 홍문관에서는 나머지 항목에 대해서는 편찬 규정을 정해 확실하게 지시하였다. 『헌산지』 본문인 읍지 내용을 보면 ①방리·②도로·⑦관직·⑰제언·㉒목장·㉔관애·㉕조적·㉖전세·㉗대동·㉘군세·㉙봉름 모두 홍문관의 규정대로 기재되어 있다.

경우가 많아 이 글에서는 관애로 표기하였다.

37) ①방리, ②도로, ⑤형승, ⑦관직, ⑩풍속, ⑬공해, ⑰제언, ⑱창고, ㉒교량, ㉒목장, ㉔관애, ㉕누정, ㉗고적, ㉔한전, ㉓수전, ㉔진공, ㉕조적, ㉖전세, ㉗대동, ㉘군세, ㉙봉름, ㉚군병.

38) 양보경은 『여지도서』와 『신증동국여지승람』의 내용을 비교하여 상이한 항목으로 [지도], ①방리, ②도로, ⑰제언, ㉒교량, ㉔진공, ㉖전세, ㉗대동, ㉘군세, ㉙봉름, ㉚군병, ㉔한전, ㉓수전이 신설되었음을 들었으나, ㉒교량은 『신증동국여지승람』에도 수록되어 있는 항목이며, ⑦관직, ⑬공해, ⑱창고, ㉒목장, ㉕조적 또한 신설되었다. 양보경, 앞의 논문, 1997, 24쪽 참고.

다만, [지도]는 반장 1면이 아니라, 한 장 2면인데, 『여지도서』 각 군현의 지도도 한 장 2면이다. 이는 『현산지』에 수록된 편찬 규정 이후에 반장보다는 한 장으로 하자는 논의를 수렴한 결과로 보인다.<sup>39)</sup>

①방리에서는 상북·중북·하북·상남·중남·하남면의 관문에서의 거리와 언양현 전체 호구가 기묘식년(1759) 기준으로 1,202호, 8,449구(남자 3,625구, 여자 4,824구)임을 밝히고 있다. 『여지도서』를 보면, 군현별로 호구가 기록된 곳은 경상도 전체와 경기도 교동부·영종진·금천현뿐이다.<sup>40)</sup> 중앙 정부 입장에서 보면, 군현별 인구 정도면 충분하였고, 리나 면별 인구까지는 필요하지 않았을 것이다. 『여지도서』에 수록된 경상도 각 군현의 기록은 다른 도에 비하여 한 차례 더 내용을 축소하여 분량을 줄이는 방향으로 수정되어 편찬되었음을 알 수 있다.

#### IV. 추가된 범례 5조

홍문관의 목차와 규정이 내려온 이후에도 언양현에서는 두 차례에 걸쳐 ⑬학교·⑭명환·⑮제영, ⑫궁실·⑮총묘 항목을 추가하였다. 홍문관에서는 범례를 내려 보내면서 ‘먼저 각 조항의 첫머리에 구간본의 내용을 적되 감히 한 글자라도 더하거나 덜어내지 못’한다고 하면서도 이들 항목을 빠뜨렸다. 이러한 사실은 읍지 편찬 담당자들을 곤란하게 하였다.<sup>41)</sup> 군현들 중에서는

39) 화원(畫員)을 보유하지 못한 군현은 『여지도서』를 편찬할 때 감영이나 병영·수영 화원들의 손을 빌어 군현지도를 만들어야만 했다. 배우성, 앞의 책, 142쪽 참고.

40) 『여지도서』에서 리별(里別)로 호구가 기록된 곳은 충청도·강원도·평안도 전체와 경기도 11개 군현(포천·교하·가평·장단·풍덕·진위·양성·연천·광주·양근·죽산) 및 황해도의 곡산부와 문화현이고, 면별(面別)로 호구가 기록된 곳은 함경도·전라도 전체와 황해도 21개 군현·경기도 17개 군현이다. 양보경은 경기도의 경우 10개 군현은 리별로, 19개 군현은 면별로, 1개 군현은 군현별로, 그리고 황해도 1개 군현이 리별로 호구가 기재되었다고 보았다. 군현별로 호구 기록을 확인하여 일부 내용을 고쳤다. 양보경, 앞의 논문, 103쪽 참고.

41) 『현산지』 주목.

규정에는 없지만 『신증동국여지승람』의 예에 따라 이들 항목을 그대로 기재하거나, 더 나아가 항목별로 변환된 내용을 신증하기도 하였을 것이다. 추가된 범례 5조는 홍문관 범례에서 빠뜨린 『신증동국여지승람』 5개 항목이다. 『헌산지』는 『신증동국여지승람』의 기재 내용을 모두 수록하면서, 정해진 목차대로 ‘완성’한 경상도 지역 ‘『여지도서』 형식’ 읍지의 전형이다.

그러면 추가된 항목과 구체적인 지시 사항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자.

**추입 범례(追入 凡例) : 3조**

⑬학교 : 단묘 아래에 둔다. 감영의 공문(관문)에는 마땅히 단묘 위에 두라고 했다.<sup>42)</sup>

⑭명환 : 인물 위에 둔다.

⑮제영 : 인물 아래에 둔다.

**영관 첨입 범례(營關 添入 凡例) : 2조**

⑫궁실 : 능침의 아래 학교의 위에 둔다.

⑮총묘 : 단묘 아래에 둔다.

범례는 방리부터 군병까지 모두 40조이다.

결국 최종적으로 완성된 ‘『여지도서』’의 목차는 [지도], [강역(疆域)], ①방리(坊里), ②도로(道路), ③건치연혁(建置沿革), ④군명(郡名), ⑤형승(形勝), ⑥성지(城池), ⑦관직(官職), ⑧산천(山川), ⑨성씨(姓氏), ⑩풍속(風俗), ⑪능침(陵寢), ⑫궁실(宮室), ⑬학교(學校), ⑭단묘(壇廟), ⑮총묘(塚墓), ⑯공해(公廨), ⑰제언(堤堰), ⑱창고(倉庫), ⑲물산(物産), ⑳교량(橋梁), ㉑역원(驛院), ㉒목장(牧場), ㉓관애(關陬, 관액), ㉔봉수(烽燧), ㉕누정(樓亭), ㉖사찰(寺刹), ㉗고적(古蹟), ㉘진보(鎭堡), ㉙명환(名宦), ㉚인물(人物), ㉛제영(題詠), ㉜한전(旱田), ㉝수전(水田), ㉞진공(進貢), ㉟조적(糶糴), ㊱전세(田稅), ㊲대동(大同), ㊳균세(均稅), ㊴봉름(奉廩), ㊵군병(軍兵) 순이다.

『여지도서』 경상도편은 한 장 2면의 지도와 함께 최대 40개 항목까지 수

42) 『헌산지』와 『여지도서』 언양현편에는 ⑭단묘 위에 ⑬학교가 있다.



록할 수 있게 되어 있다.<sup>43)</sup> 그러나 40개 항목을 모두 수록한 군현은 전혀 없다. 홍문관 규정에는 ⑥성지·⑪능침·⑳진보의 경우 없으면 항목 자체를 빼도록 하였다. ⑫궁실·⑮총묘·⑳교량·㉓관에는 항목을 생략하라는 규정은 없지만, 해당하는 내용이 없을 경우 군현별로 항목 자체를 생략하였다.<sup>44)</sup> 경상도에서 가장 큰 군현인 경주부편에서는 경주부에 ㉔진보가 없으므로 이 항목을 생략하여 경상도에서 가장 많은 39개 항목을 수록하였다. 안동대도 호부편에서는 ⑪능침·⑫궁실·㉓관애가 제외되어 있다. 대구도호부는 감영이 있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⑪능침·⑫궁실·⑮총묘·⑳교량·㉓관애·㉔진보 항목이 설정되어 있지 않아 34개 항목이다.

언양현은 소읍임에도 불구하고 표준 양식에 맞추어 모든 항목을 수록하려는 의지가 강하였던지 『헌산지』의 구성 항목은 37개나 된다. 언양현에는 ⑪능침과 ㉔진보가 없으므로 이 두 항목은 생략하였고, 군현에 따라서는 ⑫궁실에 기재하기도 한 객관을 ⑯공해 항목에 수록하여 ⑫궁실 항목도 보이지 않는다. 추가된 5개 항목은 다른 군현의 경우 이미 『신증동국여지승람』 편찬 때의 구성 항목이었으나, 언양현편에는 원래 ㉑제영만 들어 있었다.

⑬학교에 실린 향교를 보면 ‘예전에는 현(縣) 북쪽 2리 송북에 있었는데, 현 남쪽 3리 덕천으로 옮겼다가, 다시 현 서북쪽 3리 화장산 서쪽 기슭으로 옮겼다. 지금은 다시 덕천으로 옮겼다. 숙종 병자년(1696)에 대성전을 세웠고, 경진년(1700)에 명륜당을 세우고 잇달아 동재와 서재를 세웠다’는 내용

43) 양보경과 양진석은 『여지도서』의 목차를 ‘疆域(坊里, 道路 포함), 建置沿革, 郡名, 形勝, 城池, 官職, 山川, 姓氏, 風俗, 陵寢, 壇廟, 公廩, 堤堰, 倉庫, 物産, 橋梁, 驛院, 牧場, 關阨, 烽燧, 樓亭, 寺刹, 古蹟, 塚墓(양진석은 墓), 鎭堡, 名宦, 人物, 旱田, 水田, 進貢, 糶糴, 田稅, 大同, 均稅, 俸廩, 軍兵 등 총 38개 항목으로 파악하였다. 양보경, 앞의 논문, 1997, 23쪽; 양진석, 「18세기말 전국 지리지 『해동여지통제』의 추적」, 『규장각』 43, 2013, 57쪽; 경상도 지역에서 확인되고 있는 ⑫궁실·⑬학교·㉑제영이 빠져 있다. 이러한 오해는 『여지도서』 경상도편을 제대로 살피지 않았거나 『헌산지』의 범례를 보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44) 이는 『대구읍지』(1768, 계명대 벽귀951.984 대구부), 『경상도읍지』(1832) 등에서 관방·진보·도서 등의 항목을 적고 없을 경우 ‘무(無)’라고 표시하는 것과는 다르다 하겠다.

이 실려 있다. 앞부분의 일부는 『신증동국여지승람』을 편찬할 때 실렸어야 할 내용이며, 뒷부분은 신증한 내용이라 하겠다.

㉔명환으로는 서거광·임훈·이홍매·조유석을 실었는데, 서거광은 세종 때 현감이 되어 덕으로 잘 다스린 인물이므로 『신증동국여지승람』에 실렸어야 했거나 재발견된 인물이라 할 수 있다. 1566년·1695년·1698년 각각 언양현감으로 부임한 임훈·이홍매·조유석은 신증된 셈이다.<sup>45)</sup>

㉕제영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정몽주의 시 1편을 신증하였다. ㉖궁실로는 객관을 들어야 했으나 ㉗공해에 기재하였기 때문에 이 항목은 생략하였다. ㉘충묘로는 고려 김취려와 본조 최진립의 묘와 그 위치를 수록하였다.

그동안 『여지도서』의 항목이 어느 군현은 많은데 비해 어떤 군현은 얼마 되지 않는 이유를 근거 자료를 가지고 명쾌하게 설명하지 못해 왔다. 『헌산지』에 수록된 구간본 범례 12조, 영관 범례 35조, 주입 범례 3조, 영관 첨입 범례 2조는 이러한 의문에 답해 줄 수 있는 근거를 알려주는 귀한 사료이다.

『여지도서』에서는 군현별로 [지도]를 싣고 [강역]을 밝혔으며 ①방리와 ②도로가 상세해졌다. 특히 ①방리에서는 면까지의 거리와 리별이나 면별, 혹은 군현별 호구를 명시하였다. 이에 비해 『신증동국여지승람』에서는 군현명 아래 지방경계와 서울까지의 거리만을 나타내었다. 『여지도서』의 ⑦관직은 기존의 ③건치연혁에서 현감 1인, 훈도 1인 정도로 기재하던 것을 분리·독립시킨 항목으로 내용이 이전보다 구체적이고 상세하다.

결국 『여지도서』는 전국 지리지를 목표로 기존의 『신증동국여지승람』 수록 23개 항목에 [지도]와 [강역]를 포함시켰고, 17개 항목을 추가한 것이다. 기존의 23개 항목은 ③건치연혁, ④군명, ⑤형승, ⑥성지(성곽), ⑧산천, ⑨성씨, ⑩풍속, ⑪능침, ⑫궁실, ⑬학교, ⑭단묘(사묘), ⑮충묘, ⑯물산(토산), ⑰교량, ⑱역원, ⑳관애(관방), ㉑봉수, ㉒누정, ㉓사찰(불우), ㉔고적, ㉕명환, ㉖인물, ㉗제영이다.<sup>46)</sup> 추가한 17개 항목은 ①방리, ②도로, ⑦관직, ⑥공해,

45) 『헌산지』 현선생안.

46) 괄호 안은 『신증동국여지승람』에 수록된 항목 이름이다.

①⑦제언, ①⑧창고, ②②목장, ②⑧진보, ③②한전, ③③수전, ③④진공, ③⑤조적, ③⑥전세, ③⑦대동, ③⑧군세, ③⑨봉름, ④①군병이다.

그러나 이러한 목차와 편찬 규정은 일률적으로 모든 도에 적용되지는 않았다. 결국 영조대에 추진된 전국 지리지 편찬 사업은 미완의 사업으로 남게 되었다.<sup>47)</sup> 『여지도서』에는 경상도와 달리 다른 도에 해당하는 강화·양주·공주·평양·원주·나주·해주·함흥 8개 군현은 모두 ⑫궁실·⑮총묘·③①제영 항목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며, 이들 군현 중 ⑬학교는 함흥에만, ②⑨명환은 강화에만 항목이 설정되어 있다.<sup>48)</sup>

『여지도서』의 경상도편은 일부 군현이 누락되어 있지만, 경상감영의 지시에 따라 ‘최종적으로 확정된 『신증동국여지승람』의 모든 항목’을 반영하여 완성한 읍지들이라 할 수 있다.<sup>49)</sup> 이에 비해 다른 도 지역에서는 ⑬학교(學校)·②⑨명환(名宦)·③①제영(題詠), ⑫궁실(宮室)·⑮총묘(塚墓) 항목이 대부분 들어 있지 않다. 이들 5개 항목은 『신증동국여지승람』에 수록되어 있었던 항목이었다. 그러나 여러 차례의 수정 지시에도 불구하고 목차를 최종적으로 확정하기 이전까지는 경상도 지역에서도 빠져 있던 항목이었다.

중앙 정부의 지방 통치 자료 수집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이들 5개 항목은 그다지 필요하지 않았다.<sup>50)</sup> 그러나 재지사족들 중에는 『신증동국여지승람』의 고례(古例)를 들어 이들 항목을 유지하고자 하였을 것이다. 무엇보다도 인물 수록 기준도 중앙 정부에서 요구하는 엄격한 규정에 얹매이지 않고, 비록 수록 기준 이하에 해당하는 인물이라도 지역 사족 사회에서 합의될 정도가 되면 좀 더 많은 인물들을 수록하고 싶어 했을 것이다. 『여지도서』에서

47) 변주승, 앞의 논문, 2006, 458쪽.

48) 변주승, 2006, 앞의 논문, 359~160쪽 도표 참고.

49) 정대영은 경상도를 제외하면 『여지도서』 전체에서 ‘題詠’을 기재한 경우는 경기도의 6개 고을뿐이라는 점을 들어, 경상도의 경우 상급관청인 監營 등을 통해 조직적으로 항목이 수정된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고 추론하였다. 정대영, 앞의 논문, 395쪽.

50) 영조 시기에는 읍지 제작에 대한 입장이 교화적 차원을 넘어 지방통치에 필요한 행정적·실용적 측면을 추구하였다. 이에 홍문관에서는 『신증동국여지승람』을 개정하는 차원에서 『여지도서』 편찬을 시도하였다. 배우성, 앞의 책, 131쪽, 143쪽.

경상도 지역과 나머지 도 지역의 읍지가 차이 나는 것은 이러한 데서 연유한 것이 아닌가 한다.

한편, 전라도 『해남읍지(海南邑誌)』(想白古 915.14-H118)에 합철되어 있는 5개 읍지 중의 하나인 『창평현지(昌平縣誌)』를 통해 『헌산지』에 수록된 『여지도서』 목차 규정이 전라도 지역에까지도 전파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 읍지의 ②도로와 ③건치연혁 사이에는 총서(總叙),<sup>51)</sup> ①방리, ②도로, ③건치연혁, ④군명, ⑤형승, ⑥성지, ⑦관직, ⑧산천, ⑨성씨, ⑩풍속, ⑮총

建置沿革	耀耀	烈婦	樓亭	堤堰	塚墓	勝城	總叙	十里	橋路	縣界
本百濟屈支縣	田稅	忠臣	寺刹	倉庫	學校	城池	坊里	大路	長短	院大路
新羅改新陽屬武州	大同	題詠	古跡	物產	壇廟	官職	道路	西北	三十里	北去潭陽府界
	均稅	旱田	名宦	橋梁	書院	山川	建置沿革	長城	城府	界
	俸廩	水田	人物	驛院	閭閻	姓氏	郡名	乾井	谷	
	軍兵	進貢	孝子	牧場	公廨	風俗	形			

그림 38 『창평현지』 일부

모, ⑬학교, ⑭단묘, 서원, 여각(閭閣), ⑯공해, ⑰제언, ⑱창고, ⑲물산, ⑳교량, ㉑역원, ㉒목장, ㉓관애, ㉔봉수, ㉕누정, ㉖사찰, ㉗고적, ㉘명환, ㉙인물, 효자, 열부, 충신, ㉚제영, ㉛한전, ㉜수전, ㉝진공, ㉞조적, ㉟전세, ㊱대동, ㊲군세, ㊳봉름, ㊴군병 항목이 나열되어 있다.

이것은 일종의 『창평현지』 목차로 창평현에 없는 ⑪능침와 ㉘진보는 생략되어 있다. 서원·여각·효자·열부·충신이 별도의 항목으로 설정되어 있고, 본문을 보면, ㉚제영 뒤에 문과·무과·음사·생진 명단이 수록되어 있다. 그러나 『여지도서』 창평현편과 달리 목차에 ⑬학교·⑮총묘·㉘명환·㉚제영 항목이 포함되어 있고, ㉔궁실에 수록하기도 하는 객사를 ⑯공해에 실

51) 『창평현지』에서는 ‘총서’를 별개의 항목으로 설정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목차’로 이해한 것이 아닌가 한다.

은 것으로 보아 추가된 항목이 모두 반영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외에도 ⑥성지와 ②목장도 추가되었다. ①방리의 호구 기준이 기묘식 장적이므로 『여지도서』와 기준이 같으나, 박신극(朴新克)이 임오년(1762)에 생원이 된 것으로 보아 『여지도서』 편찬 이후의 것임을 알 수 있다. 『창평현지』에서는 『여지도서』 창평현편처럼 호구를 면별로 기록한 것은 같으나, 면별 해당 동리의 이름을 낱낱이 모두 수록한 것은 다르다 하겠다.

## V. 영관내 각조 정식

영관내 각조정식(營關內 各條定式)은 홍문관[영관(瀛館)]의 지침이 경상감영을 거쳐 내려진 것으로 여겨진다.<sup>52)</sup> 이 공문에는 (1)인물, (2)명환, (3)학교, (4)제영, (5)각조 서식, (6)책의 수에 대한 규정을 분명히 하였다. 각 항목의 규정을 보면 다음과 같다.

### <표 3> 경상감영 편찬 규정

항목	편찬 규정
(1)인물조	① 『승람』 간본에 기재된 사람은 모두 적는다. ② 사액서원에 배향된 사람은 연대의 원근을 막론하고 모두 적는다. ③ 아직 사액을 받지 못한 서원이나 향현사(鄕賢祠)에 배향된 사람은 병신년 이전이면 모두 적고, 병신년 금령 이후면 적지 않는다. ④ 문과는 참관 이상인 사람. ⑤ 당상관으로 감사를 지낸 사람. ⑥ 당하관으로 옥당을 지낸 사람. ⑦ 무과는 대장인 사람. ⑧ 남행(南行, 음관)으로 대시[臺侍, 대간(臺諫)]를 지낸 사람.

52) 황윤석의 기록에 의하면, 1760년(영조 36) 2년 만에 감영을 거쳐 다시 내려온 홍문관 공문에는 각 지방에서 작성할 범례와 목록이 일일이 지정되었다. 더구나 인물에 수록될 수 있는 범위조차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었다. 배우성, 앞의 책, 137쪽; 『현산지』에 수록된 각조정식은 그때 내려온 공문 자체를 보여주고 있다.

	<p>⑨ 비록 위의 조항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학행이 뛰어나 조정에 알려져서 소명(召命)을 받은 사람(조정으로부터 별도의 유시가 내려진 경우), 선직(善職, 동궁의 공료나 왕자의 사부 등)에 제수된 사람은 반드시 증명할 만한 실적을 확인한 뒤에 주를 달아 기록한다.</p> <p>⑩ 효자·열녀·절의는 반드시 조정에 알려져 이미 정려·증직·복호된 사람만 적고, 그 외에는 모두 기록을 불허한다.</p> <p>⑪ 만약 죄를 지어 사형을 받아 서책에 이름이 적힌 자나 추탈당하여 벼슬이 회복되지 않은 사람은 비록 마땅히 들어갈 조항에 해당되더라도 모두 뽑아낸다. 만약 어지럽게 기록하는 자는 마땅히 잘못되는 일[생경(生梗)]이 있을 것이다. 인물의 취사는 진실로 읍지 가운데 제일 어려운 일이다. 만약 한계가 없다면 반드시 그럴 만한 사람이 아닌데 기록되거나 훌륭한 인물이 누락되는 탄식이 있을 것이니, 널리 고을의 수령[읍재(邑宰)]과 의논하여 여러 차례 헤아려야 할 것이다. 조목을 만들어 여러 고을에 반포하니 반드시 이로써 한계를 삼아 하나같이 공변된 의논에 따라 뽑고 기록하라. 만약 한정된 조항 외에 함부로 어지럽게 기록하는 폐단이 있으면 일을 맡은 사람에게 반드시 잘못되는 일이 있을 것이다.</p>
(2)명환조	『승람』 간본에 기재된 사람 외에, 한 때의 성예(聲譽)가 있다고 해서 다 기록할 수는 없다. 반드시 치적이 탁월하고 은택이 멀리 미친 자로서 큰 유현이라면 기록할 수 있다.
(3)학교조	금령 이후에 세워진 향현사나 비석 등의 글은 기록할 수 없다. 향교 이외의 서원·영당·서재 등은 마땅히 『승람』에 의거하여 기록하되, 단묘의 아래에 둔다. <sup>53)</sup>
(4)제영조	하나같이 『승람』에 적힌 대로 기록하고, 그 나머지 가장 회자된 것 외에는 절대 적을 수 없다.
(5)각조 서식	먼저 『승람』 간본을 해당 조항의 첫머리에 적고 추가된 사항을 이어서 적되, 간본의 [신증]은 [구증]이라 하고, 이번에 추가한 것을 [신증]이라 한다. 만약 추가할 것이 없으면 억지로 찾아서 새로 더할 필요는 없다.
(6)책의 수(書件數)	어람 1권, 홍문관 1권, 성균관 1권, 감영 2권, 재단하거나 장정하지 않고 모두 봉하여 감영으로 올려 보낸다. [御覽一 瀛館一 成均館一 營二 不裁剪裝潢 都封上營]

53) 이 규정을 보면 홍문관에서 내려 보낸 공문의 일부라는 추정이 가능하다. 추입 범례 ⑬학교에서도 학교를 단묘 아래에 둔다고 하였으나, 감영의 공문에는 마땅히 단묘

1759년 12월 23일 김응순이 영조에게 각도 읍지를 완성하였으나, 그 본문의 인물 항목에 수록된 것이 난잡하여 각도에 명하여 다시금 수정하도록 요청하여 허락받은 규정이 바로 영관내 각조 정식으로 여겨진다.<sup>54)</sup>

경상감영에서 내려 보낸 홍문관 지침은 (1)인물, (2)명환, (3)학교, (4)제영에 대한 규정이 분명하고 엄하였다. 특히 (1)인물 수록 규정이 11가지나 되는 것은 중앙 정부에서의 논의 결과를 구체화한 것이라 할 수 있다. (2)명환, (3)학교, (4)제영 항목은 앞에서 본 것처럼 홍문관에서 추가하도록 한 ㉓학교 · ㉔명환 · ㉕제영에 해당한다.

(5)각조 서식은 이미 홍문관 범례에 실려 있던 내용을 구체화한 것이다. (6)책의 수는 각 군현에서 5권을 만들어 올렸음을 보여준다.<sup>55)</sup> 각 군현에서는 중앙에 올려 보낼 3권(어람 · 홍문관 · 성균관), 감영에 비치할 2권을 만들어 감영에 바쳤다. 감영에서는 각 군현에서 모아온 읍지를 일률적으로 재단하고 장정하여 책으로 묶었다.

읍지 상송령(上送令)에 따라 만든 읍지는 내용이 지나치게 간략하고, 인물 수록 기준이 엄하여 재지사족들에게는 매우 불만스러운 것이었다. 이러한 여론을 반영하여 전라도 순창에서는 1760년(경진) 자체적으로 사찬읍지인 『옥천군지』를 편찬하여 1766년(병술) 목활자로 간행하였던 것이다.<sup>56)</sup>

---

위에 두라고 했다는 내용이 실려 있다. 결국 ‘영관내 각조 정식’의 많은 내용들은 홍문관에서 내려 보낸 공문을 이첩(移牒)한 것으로 볼 수 있다.

54) 『승정원일기』 영조 35년(1759년) 12월 23일(기해) 참고.

55) 1760년 예산현에서는 어람용 · 감영보관용 · 홍문관용 3종류의 읍지를 작성하여 발송하였다. 배우성은 『여지도서』 보유편의 경상도 하동 · 양산 · 삼가 · 의령 · 안의 · 산청 등의 군현 읍지 호구 기준인 신묘년을 1771년(영조 47)으로 파악하였으나, 1831년(순조 31)에 해당한다. 『여지도서』 보유편에 수록된 11개 군현 읍지는 영천군을 제외하고는 모두 『경상도읍지』(1832, 순조 32)에 실린 것들이다. 『영천군읍지』는 『영남읍지』(1872)에 실려 있는 것이다. 그는 이들 읍지가 『여지도서』의 범례와 형식면에서 매우 유사하다고 하였으나, 『대구읍지』(1768)로부터 시작된 읍지 형식으로 『여지도서』와는 다른 ‘새로운 형식’이다. 배우성, 앞의 책, 135~136쪽, 138쪽 참고.

56) 신병식 역, 『국역 옥천군지』, 옥천향토문화연구소, 1997, 45쪽; 디지털순창문화대전 『옥천군지』 참고; 양보경, 앞의 논문, 106~109쪽.

## VI. 맺음말

언양현 읍지인 『현산지』(1760)에 수록된 서문과 각종 범례(凡例)는 경상도 지역 『여지도서』의 표준 양식, 곧 목차와 편찬규정을 밝혀주었다. 『현산지』를 통해 밝혀낸 『여지도서』의 목차는 [지도]와 [강역]을 제외하고 모두 40개 항목에 이른다. 『현산지』에 따르면, 『여지도서』는 전국 지리지를 목표로 기존의 『신증동국여지승람』 수록 23개 항목에 [지도]와 [강역]을 제외하면 17개 항목을 추가한 것이다. 각 군현에서는 경상감영에서 내려 보낸 홍문관 지침에 따라 중앙에 올려 보낸 3권[어람·홍문관·성군관], 감영에 비치할 2권을 만들어 모두 감영에 바쳤다. 감영에서는 각 군현에서 모아온 읍지를 일률적으로 재단하고 장정하여 책으로 묶었다.

경상도 지역 『여지도서』는 일부 군현이 누락되어 있지만, 최종적으로 결정된 ‘『신증동국여지승람』의 모든 항목’을 반영하여 완성한 읍지들이다. 이에 비해 나머지 도 지역 『여지도서』는 학교·명환·제영, 궁실·총묘 항목이 대부분 들어 있지 않다. 이들 5개 항목은 『신증동국여지승람』 수록 항목이었으나, 여러 차례의 수정 지시에도 불구하고 목차를 최종적으로 확정하기 이전까지는 경상도 지역 읍지에서도 빠져 있던 항목이었다.

중앙 정부의 지방 통치 자료 수집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이들 항목은 그다지 필요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재지사족들 중에는 『신증동국여지승람』의 고례를 들어 이들 항목을 유지하고자 하였을 것이다. 아울러 인물 항목도 중앙 정부에서 요구하는 수준으로 제한하지 않고 더 많은 인물들을 수록하고자 하였을 것이다. 『여지도서』에서 경상도 지역과 다른 도 지역의 읍지 목차가 일부 다른 것은 이러한 데서 연유한 것으로 보인다.

※ 이 논문은 2017년 2월 20일에 투고 완료되어  
2017년 2월 22일부터 3월 16일까지 심사위원이 심사하고,  
2017년 3월 17일 편집위원회에서 게재 결정된 논문임.



## 참고문헌

- 『현산지(峴山誌)』, 『신증동국여지승람』, 『여지도서(輿地圖書)』, 『대구읍지(大丘邑誌)』(계명대학교 동산도서관 벽귀951.984 대구부근), 『경상도읍지』(1832), 『영남읍지(嶺南邑誌)』(규12173-17-6), 『상산읍지(商山邑誌)』(상백고 915.15-sa58s).
- 국사편찬위원회, 『여지도서』 상·하, 탐구당, 1973.
-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승정원일기』 『영조실록』
- 김우철, 「조선후기 『여지도서』에 나타난 인천 지역의 성씨와 인물」, 『인천학연구』 6, 2007, 237~254쪽.
- 김우철, 「『여지도서』 ‘성씨’조의 검토」, 『한국사학보』 25, 2006, 611~644쪽.
- 김우철, 「『여지도서』를 통해 본 조선후기 전라도의 개관 실태」, 『전북사학』 37, 2010, 165~200쪽.
- 문용식, 「조선후기 『여지도서』에 나타난 인천 지역의 환곡운영」, 『인천학연구』 6, 2007, 187~213쪽.
- 문용식, 「『여지도서』를 통해 본 18세기 조선의 환곡 운영 실태」, 『한국사학보』 25, 2006, 495~529쪽.
- 배우성, 「18세기 전국지리지 편찬과 지리지 인식의 변화」, 『한국학보』 22-4, 1996, 148~160쪽.
- 배우성, 『조선후기 국토관과 천하관의 변화』, 일지사, 1998, 130~145쪽.
- 변주승, 「조선후기 『여지도서』의 성격과 인천 지역의 특성」, 『인천학연구』 6, 2007, 215~235쪽.
- 변주승, 「『여지도서』의 성격과 도별 특성」, 『한국사학보』 25, 2006, 435~464쪽.
- 변주승, 문용식 외, 『국역 여지도서』 1~50, 디자인 흐름, 2009.
- 변주승·김정화, 『여지도서』 전라도편 성격과 물산·진공 조항 분석, 『역사와 실학』 52, 2013, 69~100쪽.
- 서종태, 「『여지도서』의 물산 조항 연구」, 『한국사학보』 25, 2006, 573~609쪽.
- 성범중·엄형섭 역, 『여주 울산지리지』 I, 울산광역시문화원연합회, 2014, 262~274쪽, 447~450쪽.

- 성여신 외, 이상조 역, 『국역 진양지』, 진양문화원, 1991, 702쪽.
- 신병식 역, 『국역 옥천군지』, 옥천향토문화연구소, 1997, 45쪽.
- 양보경, 「조선후기 읍지의 성격과 지리적 인식에 관한 연구」, 『지리학논총별호』 3, 1987, 100~109쪽.
- 양보경, 「18세기 지리서·지도의 제작과 국가의 지방지배」, 『응용지리』 20, 성신여자대학교 한국지리연구소, 1997, 23쪽, 24쪽.
- 양윤정, 「18세기 여지도서 편찬과 군현지도의 발달」, 『규장각』 43, 2013, 1~30쪽.
- 양은용, 『옥천군지』 해제, 디지털순창문화대전.
- 양진석, 「18세기말 전국 지리지 『해동여지통재』의 추적」, 『규장각』 43, 2013, 57쪽.
- 이상식, 「『여지도서』를 통해 본 지방행정 체계의 구성 및 운영원리 - 충청도 지역을 중심으로」, 『한국사학보』 25, 2006, 465~494쪽.
- 이재두, 「단밀현의 역사적 변천과 상주목 속현 『단밀현지』(1749)의 편찬」, 『상주문화연구』 26, 경북대 상주문화연구소, 2016, 32쪽.
- 이철성, 「조선후기 『여지도서』에 나타난 인천 지역의 전결세와 조운로 연구」, 『인천학연구』 6, 2007, 255~285쪽.
- 이철성, 「『여지도서』에 나타난 전결세 항목의 텍스트적 이해」, 『한국사학보』 25, 2006, 531~571쪽.
- 정대영, 「영조연간 전국지리지 『여지도서』의 서지적 연구」, 『서지학연구』 68, 2016, 377쪽, 395쪽, 402~405쪽.
- 최영희, 해설, 『여지도서』 상, 탐구당, 1973, 1~9쪽.
- 허원영, 「18세기 중엽 조선의 호구와 전결의 지역적 분포 -『여지도서』의 호구 및 전결 기록 분석-」, 수선사학회, 『사림』 38, 2011, 1~37쪽.

Abstract

The table of contents and compilation regulations of *Yeojidoseo*(『輿地圖書』) shown on *Heonsanji*(『嶺山誌』)

Lee Jae-doo\*

The preface and various introductory notes printed on *Heonsanji*(『嶺山誌』)(1760), *Eupji*(『邑誌』, local gazetteer) of EonyangHyeon(彦陽縣) explain the table of contents and compilation regulations of *Yeojidoseo*(『輿地圖書』). The table of contents for *Yeojidoseo* is 40 items except for [Map] and [Boundary(疆域)]. According to *Heonsanji*, *Yeojidoseo* contains *Eupji* where [Map] and [Boundary], and 17 items are added to 23 items listed on existing *Sinjeung Dongguk Yeojiseungram*(『新增東國輿地勝覽』) – compiler intended to expand *Yeojidoseo* into national geography section. According to guideline of Hongmunkwan(弘文館) sent down from Gyeongsang Gamyeong(慶尙監營), each county sent 3 books[King's reading(御覽) · Hongmunkwan · Seonggyunkwan(成均館)] to be sent to central government and 2 books kept in Gyeongsang-Gamyeong, to Gamyeong. In Gamyeong, *Eupji* collected in each county were uniformly cut, bound to a book.

Gyeongsang-do chapter of *Yeojidoseo* was missing some counties. But all of items of *Sinjeung Dongguk Yeojiseungram* were finally reflected through instructions for revision. On the other hand, the other

---

\* Completed Ph. D. Course in Dept. of Historical studies,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province chapters do not contain items of school(學校)・important government official(名宦)・poetry(題詠), royal chamber(宮室)・grave(塚墓). The 5 items were listed ones on *Sinjeung Dongguk Yeojiseungram*. But they were missing before the table of contents was finally fixed, though instructions for revision several times.

These items would not have been necessary in terms of data collection for governing local government by central government. But from the standpoint of local scholars(在地士族), they would want to keep the items, raising the old cases(古例) of *Sinjeung Dongguk Yeojiseungram*. And they would want to list more figures on figure item, not limiting number of figures – central government limited it. This would be the reason why Gyeongsang-do chapter and other province chapters are different each other in *Yeojidoseo*.

**Key words:** *Heonsanji*(『嶽山誌』), *Yeojidoseo*(『輿地圖書』), table of contents(目次), *compilation regulations*(編纂規定), *Eupji*(『邑誌』, local gazetteer), *Sinjeung Dongguk Yeojiseungram*(『新增東國輿地勝覽』), EonyangHyeon(彦陽縣).

※『현산지』와 읍지 표준 양식(『역주 울산지리지』 I, 447~450쪽)







